



SEPTEMBER 1999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464-800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읍 단발리 698-6 연세의료원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TEL: 0347-765-0442 FAX: 0347-761-7592

발행인: 유 계 준 편집인: 정 은 기 등록번호 제 2-124 호 인쇄인: 김 영 길 인쇄처: 서울 중앙문화사 TEL: 717-5511(D) FAX: 717-5515

권 두 언

새로운 세기를 향한 우리의 각오

박 중 한 (대구요성가톨릭의대 정신과, 분회 부이사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1994년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분과 학회로 창립된 후 그 해부터 매년 2회의 춘·추계 학술 대회와 전공의들을 위한 노인정신의학 연찬회, 연 2회의 춘·추계 학술 집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1997년 5월에는 정기 학술 잡지인 『노인정신의학』이 창간되어 연 2호씩 발간되며 노인정신의학이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36명이 힘을 모아서 1998년 10월에는 교과서 『노인정신의학』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본회는 분과 학회로서의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기념비적인 사업을 면미이 성공시킴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학회를 창립하고 이끌어 온 집행부를 위시하여 모든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자만할 일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본회가 앞으로 펼쳐야 할 사업 몇 가지를 제안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

1. 학부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 교육에서 노인정신의학 분야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함은 당연하다. 내일의 의료계 주역들에게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강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2. 노인정신의학 전임의 제도이다. 정신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의 세부 전공(subspecialty)으로서 임상과 밀접한 것은 소아정신과와 노인정신과이다. 노인정신의학의 세부 전공 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은 비단 연령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에서는 치매나 성망과 같이 다른 연령층에서는 드문 정신 장애들이 흔하고, 성인병과 같은 만성 혹은 퇴행성 공존 질병(comorbidities)이 흔하다. 본회에서는 소아정신의학회의 전임의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체에 노인 정신의학에서 전임의 제도의 필요성 유무, 실시 시기, 커리큘럼 등을 의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신경과학의 발전이 일천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정신 장애는 뇌의 이상과 연관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노인정신의학은 그 특성상 뇌의 이상이 정신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노인정신의학과 노인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뇌와 행동간의 가교(bridge between brain and behaviors)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4. 학회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현재 학회지의 외양은 아름답다. 남에게 널리 읽히는 학회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도 외양에 못지 않게 훌륭해야 한다. 부고되는 논문의 수도 많아야 하고 게재가 저절되는 원고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발표되는 논문의 질도 우수해야 한다. 경비가 허락된다면 심사 제도(referee system)를 강화하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에게 포상하고, 또 원고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생각하던 바를 간략하게 피력해 보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들이 아님은 물론이다. 틀림없이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의 방법에 매달리려는 것이 아니고, 본 권두언이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분들의 마음 속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키는 조그마한 돌맹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주계 전공의 Workshop

- 일 시 : 1999년 10월 1일(금) 오전 9시 30분~12시
- 장 소 :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의학연구소

시 회 : 이 천(가톨릭의대)

☞ 노인의 진단 및 평가

		좌 장 : 정 은 기(국립서울정신병원)
09:00-09:30	등록	
09:30-10:00	노인의 정신과적 진단 및 평가	김 영 돈(을지대)
10:00-10:30	노인의 신경과적 진단 및 평가	백 건 우(고려대)
10:30-10:50	토의 및 휴식	
		좌 장 : 장 인 과(고려대)
10:50-11:20	노인의 뇌영상학적 진단 및 평가	권 준 수(서울대)
11:20-11:50	노인의 신경인지기능의 진단 및 평가	전 진 숙(고신대)
11:50-12:05	토 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육 Workshop(Arie Course)

- 일 시 : 1999년 10월 2일(토)~3일(일) 오후 1시 30분~7시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1층 루비룸

What is Arie course?

The Arie course was developed by Dr. Arie.
It will be helpful to psychiatrists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psychiatric disease in elderly
as well as train GPs and other healthcare providers.
It will be the first introduction to Korea as a CME program.

☞ 주요 Workshop 일정

10월 2일(토) 13:30-19:00	Welcoming Address	Kae Joon Yoo
	Key Note Lecture	Edmund Chiu
	Brain Imaging	David Ames
	Epidemiology	Maeng Je Cho
	Dementia	BS Kee, BK Yeon, DK Kim, BH
10월 3일(일) 9:30-17:30	Special Areas (Falls, Incontinence, Sexual Problems, Pain etc.)	YS Suh, JK Lee, KW Cho
	Depression	Min Soo Lee
	Schizophrenia	David Ames
	Anxiety	Chul Lee
	Delirium	Edmund Chiu
	Issues in Korean Elderly	DI Kwak, JH Lee, KJ Yoo

• 주최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원 : 한국화이자 제약주식회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 시 : 1999년 10월 1일(금) 오후 1시 30분~7시
- 장 소 :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사 회 : 연 병 길(학술이사)
유 계 준(이사장)

30-1 : 40 인사말

특 강

40-2 : 20	Clinical Approaches to Age-associated Dementia	좌 장 : 우 행 원(이화대학) K. Hasegawa (St. Marianna Univ., Japan)
2 : 20-3 : 00	Symptomatic Treatment for AD and New Drugs for AD	H. Feldman (Univ. of British Columbia, Canada)
3 : 00-3 : 20	Coffee Break	

사 회 : 김 승 현(고려대학)

혈관성 치매

3 : 20-4 : 50	역학 및 위험인자	좌 장 : 허 군(아주대학) 박 종 한(대구효성가톨릭대학)
3 : 50-4 : 20	병인 및 발병 기전	김 범 생(가톨릭대학)
4 : 20-4 : 30	토 론	
4 : 30-4 : 50	Coffee Break	
4 : 50-5 : 20	임상 양상 및 진단	좌 장 : 강 병 조(경북대학) 서 국 희(한림대학)
5 : 20-5 : 50	뇌영상학적 소견	정 은 기(국립정신병원)
5 : 50-6 : 20	치 료	김 영 훈(인제대학)
6 : 20-6 : 30	토 론	
6 : 30-6 : 40	우수 포스터 상 시상	
1 : 30-1 : 30	Poster Presentation	
6 : 40-7 : 0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9년도 정기총회	

- 주 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 원 : 한국예자기주식회사 · 한국노버티스주식회사

총무이사회 소식 ·

- 1998년 11월 4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9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 1998년 12월 1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8년 송년회 모임이 한국관에서 전체 임원진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게 열렸습니다.
 - 1998년 12월 14일 1999년 서울에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 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노년학대회의 참가 협조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1998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은누리건강가족복지회장에게 대국민홍보강좌-치매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에 본 학회가 협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1999년 2월 3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제 1차 실행이사회가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은 1999년도 사업계획 및 1999년 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관한 건, 학회지발간, 회보발간 등이었습니다.
 - 1999년 2월 26일 1999년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노인성질환의 현황 및 예방에 국외연사로 미국의 이창희, 정균희, 서창남 선생님과 중국의 이동근 선생님을 추천하였습니다.
 - 1999년 4월 7일 실행이사회에서 중국의 이동근 선생님께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참석시의 여비 및 국내 체류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999년 6월 7일 임시실행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안건은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1999년 10월 2, 3일 개최되는 제 1차 전문의 Workshop(Arie Course)의 진행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 1999년 6월 8일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노년학대회에 참석하신 전 IPA회장이신 일본의 K. Hasegawa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 일본 치매노인의 발전현황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1999년 6월 10일 Novartis Foundation 지원 Geriatric Medicine Workshop(10월 11일, Singapore) 참가신청자를 학술이사 앞으로 추천해 주도록 임원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1999년 6월 25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시이사회가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Business Cent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은 '시,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관한 건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집약된 내용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앞으로 보내어 보건복지부에 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1999년 7월 8일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초청강연 및 친교의 시간을 이동근, 정균희 선생님을 모시고 한식당 춘하추동에서 전 임원진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1999년 8월 11일 1999년도 연보자료 및 회무보고 제출요청이 있었습니다.

- 1999년 9월 10일 용인효자병원에서 추계학술집담회후 평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Workshop(Arie couse) 구체적 진행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학술회사회 소식 •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노년학 대회가 1999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열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6월 8일 일본 St. Marianna University의 K. Hasegawa 교수를 모시고 한미리에서 강의와 함께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 1999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1999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유계준 이사장이 의학 분과의 좌장을 맡고 중국 연변대학원의 이동근 교수가 「중국 조선족 중 노년 사망률과 그 원인」, 미국 UCLA의 정균희 교수가 「Adaptation of Cognitive Therapy to the Korean Geriatric Population」, 오병훈 교수가 「한국인 노인성 치매환자의 치료 현황」, 연병길 교수가 「노인정신의학의 역학」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8일 학회 종료 후 춘하추동에서 이동근 교수, 정균희 교수, 독일의 권순교 박사와 본 학회 임원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Novartis Foundation for Gerontological Research에서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Singapore에서 열리는 「Intensive Short Course in Geriatric Medicine」에 참가 희망자 2명의 추천을 의뢰하여 경상대학의 우성일 교수와 충남 아산시 보건소의 류성곤 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 학술집담회

- 일 시 : 1999년 9월 10일(금) 오후 4시~5시 30분
- 장 소 : 용인 효자병원

4 : 00 - 4 : 40	치매 환자에 동반된 medical condition	김 용 희 (용인 효자병원)
4 : 40 - 4 : 50	토 론	
4 : 50 - 5 : 30	노인성 치매의 정신약물학	김 기 웅 (용인 효자병원)
5 : 30 - 5 : 40	토 론	

- 1999년도 추계 학술대회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원저 구연 발표를 포스터 발표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의 우수포스터를 심사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각 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 바랍니다.

• 교육이사회 소식 •

- 노인정신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집행부 이사와 상의하여 'Arie course'를 1999년 10월 2일과 3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10월 1일 전공의를 위한 '노인의 진단 및 평가' workshop이 시행됩니다.
- 김용희 회원은 9월 10일 '치매환자에 동반된 medical condition'을 발표했습니다.

• 기획이사회 소식

- 여러 회원들의 주소, 근무지,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나 공지사항, 기타 기재 착오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이사회 박희정(전화 : (02) 2204-0334, Fax : (02) 3436-0895, E-mail : hjdoc@netsgo.com)회원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소식

- 노인정신의학 제 3권 2호의 원고 투고 바랍니다.
노인정신의학에 관련된 분야의 원저, 사례보고 등 관련 논문이면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조 맹 제
전화 : (02) 760-3155 · FAX : (02) 744-7241

• 회원 투고 •

밴쿠버 IPA 학회를 다녀와서

김 재 현 (원광의대)

국제노인정신의학회(IPA)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내가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원광정신요양원의 할머니 치매환자들과 주위의 치매환자들을 보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중이어서 산적해 있는 일들을 뒤로 미루고 기꺼이 학회에 참석하였다. 태평양에 연해 있는 밴쿠버는 화창한 날씨, 진한 바다 내음,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로 내 고향 부산에 온 듯 느껴졌다.

여느 북아메리카 도시와는 달리 길거리가 좁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졌고, 밤에도 길거리를 산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화창하고 맑은 날씨는 일년 중 7, 8월 두달밖에 되지 않고, 연중 대부분은 출지는 않지만 흐리고 추적추적 비가 많이 내려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한다.

1983년에 시작하여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노인정신학회는 금년이 9회였고 개인적으로는 작년 APA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하는 해외 학회였다. 각 분야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하는 APA에 비해 규모 면에서 작기는 하지만 오붓하고 알찬 맛이 있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이 점점 증가하는 노인정신의학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듯 과거에 비해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다고 하신다. 첫날 일요일에는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으로 피곤하여 welcome reception만 참석하였다. 둘째날 opening ceremony를 시발로 본격적인 학회가 열렸다.

일정은 아침 6시 30분에 약 2시간 동안 satellite symposium으로 시작하여 오전과 오후에 각각 plenary session과 concurrent session을 진행하였고 오후 schedule에는 poster session이 첨가되어 있었다. 학회 기간동안 아침과 점심식사는 대부분 제약회사가 sponsor하는 satellite symposium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약 30명의 전문의들이 참석하였고 그중 6명이 발표를 하였는데 조맹제, 오병훈, 서국희 회원은 구연 발표를 하여 많은 호평을 얻었다. 또 특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하양숙 교수께서 같이 참석하였다. 평소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볼 때 협조하려면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재를 보게 되어서 기뻐고, 또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적극적인 참석이어서 더 인상적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점점 이양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환자들의 여러 정신과 질환 중 레이션 대통령의 발병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Alzheimer's disease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아직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인 치매에 대한 연제는 조기 발견을 위한 여러 진단법에 관한 논문, 진행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발표되었다.

조기 발견 진단법으로서는 MMSE를 보완하는 clock drawing, The 7 Minutes Screen이 연구 개발되고 있었고, 치료 약물로서는 국내에 소개된 cholinesterase inhibitor인 Aricept와 Exelon 외에도 metrifonate, cholinergic transmitter system에 관여하는 약물, 기타 disease risk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hormones, antioxidants, anti-inflammatory drug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었다. 이는 환자들마다 개인차에 따른 약물 투여와 병용, 보완 투여 및 부작용 발생시 다른 약리의 약물로 대체 투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치매하면 불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을 했던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학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자극을 받은 것 외에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를 이끌어 가는 많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큰 소득이었다. 전체 회원들을 먼저 배려해 주시던

이상연 선생님, 그러한 선배님을 옆에서 항상 보필하시던 정은기 선생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던 조맹제 선생님, 외유내강의 겸손함이 몸에 배인 연병길 선생님, 새벽부터 satellite symposium에 참석해서 같이 강의를 듣던 기백석, 김영훈 선생님,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탐험(?)하시던 오병훈, 전진숙 선생님 등.

또한 회자정리(會者定離), 離者定會? 중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서국희 선생도 뜻하지 않게 학회에서 만났고 몇 년전 같이 진료, 연구하였던 고효진 선배님도 만났다.

일정 중 수요일 저녁 잠을 내어 한국에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모여 태평양 위를 배를 타고 즐겼던 선상투어와 이때 이형영, 이상연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한 식사, 학회 전 Banff에서 록키 산맥의 Athabasca Glacier에서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로 만든 칵테일, 이런 여러가지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끝으로 학회기간 동안 회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 정보 ①.

Homepage 소개

Elder Abuse Prevention : Information and Resource Guide

- What is elder abuse?
- How is it recognized?
- Who MUST report?
- What should I do?
- Who do I call to report and for help?
- Additional background information on Elder Abuse Prevention

<http://www.oaktrees.org/elder/>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기초생활법(1999/8/17 조선일보)중 노인복지 확대

- 경로연금 지급 대상 노인을 2003년까지 85만9천명으로 늘린다. 연금지급액도 연차적으로 5만원까지 인상한다. 현행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은 24만9천명이며 이들은 2~5만원씩을 차등지급 받아 왔다.
- 노인의 재취업확대를 위해 2000년까지 고령자 적합직종을 60개에서 80개로 늘리고 노인 취업알선 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도 현행 70개, 510개에서 각각 90개, 630개로 확충한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지원 확대

- 치매요양시설을 24개에서 2003년까지 50개소로 증설하고 치매요양병원도 12개에서 시도별로 2001년까지 1개소 이상 증설한다.
- 의료보험금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

· 노인 정보 ② ·

치매노인의 성적인 문제행동의 이해와 대응방법

한국치매가족회

사례 :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있었다. 초여름때의 일로 내가 뜨거운 타월로 등, 옆구리, 복부를 씻어드리면 기분 좋은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시아버지가 나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타월을 들고 있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다시 '이불속으로 안 들어가?' 하며 재촉했다. '좀 있다가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시아버지는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편에게 얘기하니, 남편은 시아버지가 나를 시어머니로 착각하는 것 같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한동안 씻겨드리거나 소변을 받아낼 때 조금 긴장하게 되었지만 시아버지는 그 뒤에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치매노인의 성적 행동은 간호하는 가족이나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간호하는 사람에게도 대응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가족에게는 치매노인의 다른 '문제행동'과는 달리 타인에게 말하기 어렵고 상담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히 걸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성적 행동은 치매노인을 간호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치매노인이라고 해도 개인차와 남녀차, 연령차가 있고 건강한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관심이나 성적 욕구도 있고 성행위도 가능하다. 이것은 치매상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는 기본적으로 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기억이나 판단력 등이 저하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 행동이 건강한 노인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남성의 치매노인은 이전에는 부인의 기분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성적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치매에 걸리게 되면 지적 판단이 곤란해지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보호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성적 '이상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또는 며느리에게 성적 관심이나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감정을 거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절제된 형태로 나타났던 노인이 치매상태가 되면 지적 억제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며느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안으려고 한다든지, 목욕탕을 엿본다든지 하는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의 성적 행동중에는 건강한 노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성적 행동을 모두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배경은 어느 인간이나 나이를 먹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관심, 성욕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편견이나 혐오감이 강하므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불결하다, 변태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항상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나 가족으로서는 치매노인의 성적 행동에 당황하고 혐오감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금지시키거나 제지하고 싶은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하는 간호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간호문제를 한층 더 곤란하게 한다.

남성인 치매노인이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드물다. 성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욕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간호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일도 있다. 만약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성기를 만지기를 요구할 때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주저하거나 저항하게 되지만, 치매노인의 성기를 만져드려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행동과 욕구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저속한 단어를 입에 담는 일도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교양있고 존경받아 온 노인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남 앞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을 하면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든다.

치매노인의 성적 행동은 치매노인의 다른 문제행동과 비교해 많지는 않지만 간호자를 매우 당황케 한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매에 걸려도 가지고 있는 성적 관심과 성욕에서 오는 인간적인 행동으로 취급하고 치매 때문에 그 표현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적 행동은 피부와 피부를 통한 접촉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성적 행동에 대해 그것을 억제하지 말고 더욱 부드러운 행동(손을 잡는 등)으로 바꾸든지, 성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좀 있다가'라고 말하는 등의 대처방법이 바람직하다. 치매노인은 스스로의 성적 관심이나 성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행동을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늙어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감정이나 욕구로 보아야 한다. <효심16호에서 발췌>

• 신간 안내 •

□ Causes of Aging

- Author : Wickens, A / publisher : Gordon & Breach / published 1999 / \$49.50 / hardcover

□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 Bengston, V / Springer PUBL / 1999 / \$49.46 / hardcover

□ *The Older Adult Psychotherapy Treatment Planner*

– Frazer, D / Wiley / 1999 / \$35.96 / paperback

□ *Towards Prolongation of the Health Life Span : Practical Approaches to Intervention*

– Harman, D / New York Acad / 1999 / \$164.48 / hardcover

□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Aging : Roles of Mitochondria, Free radicals, and Antioxidants*

– Cadenas, E / Dekker, Marcel / 1999 / \$157.50 / hardcover

□ *Working with Toxic Older Adults : Guide to Coping with Difficult Elders*

– Davenport, G / Springer PUBL / 1999 / \$37.76 / paperback

• 회원동정

→ 유계준 이사장은 1999년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WPA(세계정신의학회)에 광동일 고문, 이정호 차기이사장, 정인파, 오병훈, 이민수, 이철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특히 이민수, 오병훈 회원이 발표한 심포지움 좌장을 주관하셨습니다.

→ 광동일 고문은 1999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 북경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IPA-Joint Meeting에 Scientific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논문 발표후 4월 11일 귀국하셨습니다. 또 1999년 10월 3~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9차 PRCP 'Psychiatric practice and new millennium' 심포지움에서 좌장을, 'Cross current of culture : Korean psychiatrists in America'에서 KNPA의 Pannel discussant를 맡을 예정입니다.

→ 우종인, 정인파, 오병훈, 이민수, 전진숙, 서국희 회원은 북경 IPA-Joint Meeting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형영, 이상연, 조맹제, 연병길, 오병훈, 기백석, 정은기, 배재남, 서국희 회원등은 1999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 9차 IPA(세계노인정신의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조맹제 회원은 'Prevalence and risks of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the young-old Korean elderly', 오병훈회원은 'Neurocognitive Assesment', 서국희 회원은 'Transcultural, Cross-Cultural, and Migrational Issues in Psychogeriatrics'에 관한 구연발표를, 전진숙 회원은 'Comparison of white matter lesions in late life depression and vascular depression'에 관한 포스터 발표를 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 오병훈 회원은 11차 WPA에서 'Correlations of psychosocial factors and cognitive impairment among the Korean Elderly'를 발표하셨습니다.

→ 이민수 회원은 11차 WPA S-129 'Ethnicity of Major Elderly Psychitric Disorders in South Korea' 심포지움에서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를 발표했습니다. 9차 PRCP 'Ethnic differences & psychopharmacology in the treatment of mood disorder' 심포지움에서 'The clinical response of Korean patient with bipolar & depressive disorders according to the functional polymorphism' 연제발표와 chairman을, 'Biology of depression and new treatment approaches' 심포지움에서 co-chairman을 맡을 예정입니다.

... 강홍조 회원은 1999년 8월 20일 중국 북경 소재 수도의과대학 부속 선무병원(북경 노인병 센터)과 학술 교류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 김 입 회원은 전주시에 김임신경정신과를 개원하셨습니다.

연락처 : 561-09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36-2 가화빌딩 2층

TEL : (0652) 272-7890 FAX : (0652) 272-7890

... 김창현 회원은 1999년 8월 28일~9월 26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단기연수를 가십니다.

... 신입회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3월 이후)

강민희, 강순아, 김경애, 김기현, 김동현, 김재민, 서무상, 서상훈, 서세령, 신용재, 신일선, 안동성, 엄세연, 유승호, 이종일, 이 훈, 이황빈, 장필립, 정광원, 정문용, 정봉주, 정희연, 조성완, 최호일, 홍진표, 황원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제 6 권 1호(99. 3.)에 주소가 누락된 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윤 :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대학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TEL : (02) 2224-3417

FAX : (02) 485-8381

E-mail : kaplann@chollian.net

김경용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전주예수병원 정신과

TEL : (0652) 230-8343

E-mail : somang885@netsgo.com

서국희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한림대학 한강섬심병원 정신과

TEL : (02) 639-5204

FAX : (02) 677-9095

E-mail : suhgh@chollian.net

신영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지방공사 강남병원

TEL : (02) 3430-0650

FAX : (02) 554-9809

E-mail : knhnp@netsgo.com

... 주소가 변경된 회원입니다.

박인준 : 330-10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과

TEL : (0417) 570-2282

FAX : (0417) 574-7992

大韓老人精神醫學會 任員陣 (1999~2000)

	TEL	FAX	E-MAIL
顧問: 郭東日	02) 920-5940 · 920-6005	02) 927-2836	
申石澈	042) 220-7287	042) 220-7886	shinsc@hanbat.chungnam.ac.kr
李亨榮	062) 220-6140	062) 225-2351	hylee@chonnam.chonnam.ac.kr
理事長: 俞桂濬	0347) 765-0443	0347) 761-7582	yopsy@chollian.net
次期理事長: 李正浩	02) 950-1083 · 950-1906	02) 936-8069	
部理事長: 李祥淵	02) 398-9418	02) 722-3832	srchnp00@chollian.net
朴宗漢	053) 650-4785	053) 623-7507	
監事: 韓東大	051) 441-5071	051) 441-5071	
鄭寅果	02) 818-6738	02) 852-1937	
總務理事會			
實行理事: 吳秉勳	0347) 765-0442	0347) 761-7582	drobh@chollian.net
平理事: 田珍淑	051) 240-6245 · 250-5070	051) 241-5069	
南宮綺	0347) 761-1890~3(교111)	0347) 761-7582	keenk@chollian.net
閔慶俊	02) 2260-2282	02) 279-8474	mind61@chollian.net
實務委員: 李相壹	02) 538-3900(교304)	02) 538-3911	wds98@hitel.net
柳尙遇	0343) 380-3750	0343) 380-3752	swyoo@yumc.yonsei.ac.kr
學術理事會:			
實行理事: 延炳吉	02) 2224-2268	02) 487-0544	knpa@www.hallym.or.kr
平理事: 金映薰	051) 890-6387	051) 893-7233	
金承賢	02) 818-6740	02) 852-1937	guiboon@chollian.net
實務委員: 徐國熙	02) 639-5204	02) 677-9095	suhgh@chollian.net
都圭永	02) 590-1533	02) 594-3870	cumcpsy@hitel.net
教育理事會:			
實行理事: 李敏秀	02) 920-5354	02) 923-3507	leeminso@unitel.co.kr
平理事: 金相國	032) 562-5101~7	032) 566-4336	
金隆喜	0331) 2880-606	0331) 2880-519	hwy827@unitel.co.kr
實務委員: 金鎮世	02) 818-6139 · 818-6140	02) 852-1937	kjinse@unitel.co.kr
金玟壽	051) 324-2227~8(교211)	051) 311-2227	
企劃理事會:			
實行理事: 鄭恩基	02) 2204-0104	02) 3436-0895	ekchg@unitel.co.kr
平理事: 趙成男	0416) 857-9095 · 857-2601	0416) 856-0163	sncho@chollian.net
崔鍾赫	02) 2204-0357	02) 458-0731	bellshin@unitel.co.kr
實務委員: 朴希貞	02) 2204-0334	02) 458-0731	hjdac@netsgo.com
涉外理事會			
實行理事: 奇栢錫	02) 2260-2254	02) 279-8474	cauhpkbs@cau.ac.kr
平理事: 金榮敦	042) 259-1256	042) 861-8918(h)	ydkim@emc.eulji.ac.kr
崔仁根	02) 639-5460 · 639-5462	02) 677-9095	ihngeun@shinbiro.com
實務委員: 南範祐	02) 2260-2172	02) 279-8474	
國際理事會:			
實行理事: 李哲	02) 590-1531	02) 594-3870	
平理事: 尹秦相	062) 220-6142 · 220-6146	062) 225-2351	jsyoon@chonnam.chonnam.ac.kr
禹誠一	0591) 750-8084 · 750-8087	0591) 759-0003	siwoo@gsnp.gsnu.ac.kr
實務委員: 李昶旭	02) 590-1533	02) 594-3870	cumcpsy@chollian.dacom.co.kr

	TEL	FAX	E-MAIL
平理事: 鄭聖德	053) 620-3341	053) 629-0256	
禹幸源	02) 760-5065	02) 760-5492	
姜弘造	0431) 213-7123	0431) 213-7117	
金稔	0652) 272-7676,7890	0652) 272-7890	AJ008@chollian.net
金憲秀	02) 2224-3413	02) 485-8381	hskim@www.amc.seoul.kr
金昌鉉	02) 260-7296	02) 268-5028	DRLIMHJA@unitel.co.kr
田珍淑	051) 240-6245 · 250-5070	051) 241-5069	
尹秦相	062) 220-6142 · 220-6146	062) 225-2351	jsyoon@chonnam.chonnam.ac.kr
金嘆薰	051) 890-6387	051) 893-7233	
金相國	032) 562-5101~7	032) 566-4336	
趙成男	0416) 857-9095 · 857-2601	0416) 856-0163	sncho@chollian.net
崔仁根	02) 639-5460 · 639-5462	02) 677-9095	ihngeum@shinbiro.com
韓一字	0331) 2880-600	0331) 2880-539	
金榮敦	042) 259-1256	042) 861-8918	ydkim@emc.eulji.ac.kr
金承賢	02) 818-6740	02) 852-1937	guiboon@chollian.net
金隆喜	0331) 2880-606	0331) 2880-519	hwy827@unitel.co.kr
崔鍾赫	02) 2204-0357	02) 458-0731	bellshin@unitel.co.kr
禹誠一	0591) 750-8084 · 750-8087	0591) 759-0003	siwoo@gshp.gsnu.ac.kr
南宮綺	0347) 761-1890~3(교111)	0347) 761-7582	keenk@chollian.net
閔慶俊	02) 2260-2172	02) 279-8474	mind61@chollian.net
編輯委員會			
編輯委員: 趙孟劑	02) 760-3155	02) 744-7241	mjcho@plaza.snu.ac.kr
朴宗漢	053) 650-4785 · 650-4282	053) 623-7507	
吳秉勳	0347) 765-0442	0347) 761-7582	drobh@chollian.net
李敏秀	02) 920-5354	02) 923-3507	leeminso@unitel.co.kr
金昌鉉	02) 260-7296	02) 268-5028	DRLIMHJA@unitel.co.kr
徐國熙	02) 639-5204	02) 677-9095	suhgh@chollian.net

• 「노인정신의학(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투고 규정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2회(6월, 12월) 연구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 접수처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
TEL : 02-760-3155
FAX : 02-744-7241

■ 논문제출요령 및 기타 공지사항

- 투고요령은 개정된(97. 1) 신경정신의학회지와 동일하다.
- 논문원고는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는 A4 용지에 2열 간격으로 인쇄한 것을 2부 논문 접수처로 제출한다.
-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3.5인치 디스켓으로 함께 제출한다.

회비납부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오병훈(연회비: 2만원)
국민은행: 275-21-0187-241

- ☞ 변동사항이 있는 회원이나 회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 02) 2204-0334 · 전송: 02) 458-0731 박희정
전화: 02) 2204-0357 · 전송: 02) 458-0731 최종혁



뜻깊은 '노인정신의학' 교과서 출판기념회

- 노인정신의학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